'유은혜 인사청문회 시즌 2' 된 대정부질문

보수 2야, 위장전입·2020 총선 출마 여부 집중 공세
유 "교육 개혁 최선…내년 유치원 놀이식 영어교육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유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답변에 나선 유 부총리는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며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유 부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자료를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우며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와 "대정부질문이나 해라", "질문답게 합시다", "경고 주세요"라고 항의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소 험악한 분위기 속에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으나, 유 부총리는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자신의 딸이 다닌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지적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명문 학교가 아니고, 입학생들이 부족하기도 했다"며 반박했다. 또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될 바가 없지만, 국민 우려를 의식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주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자 즉답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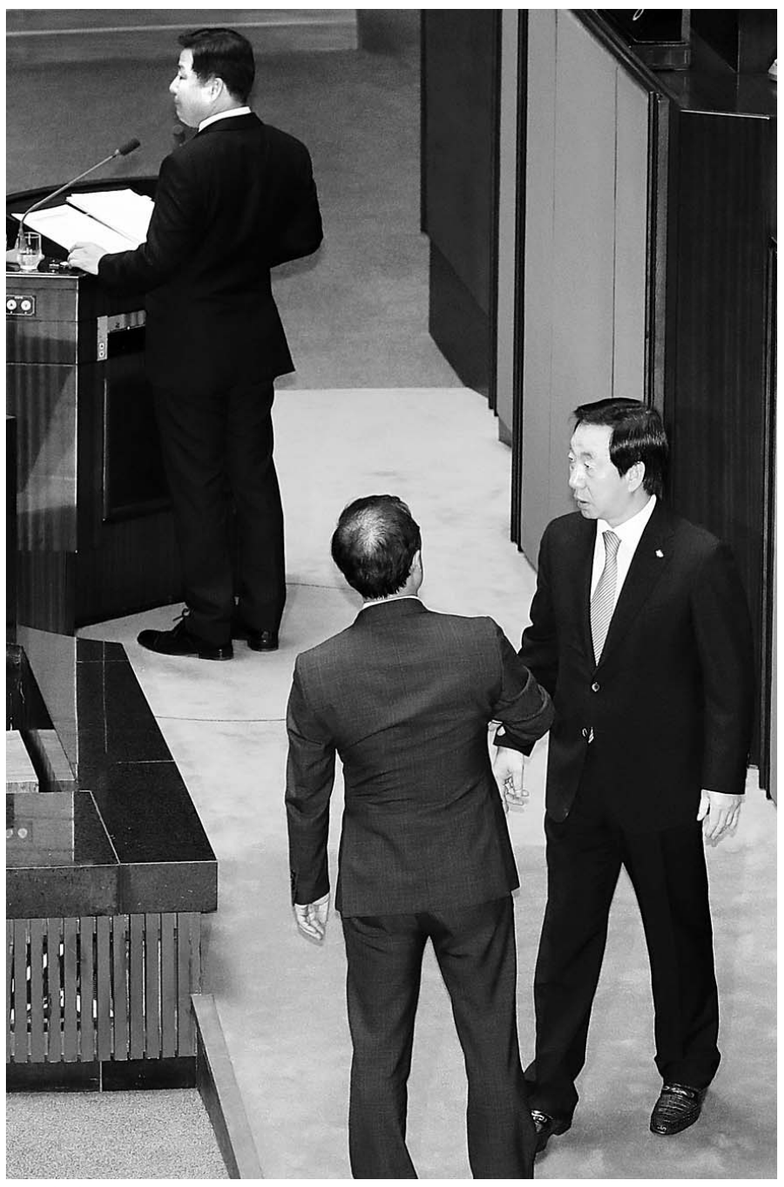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며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같은 유 부총리의 답변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거취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냐"라며 "더이상 장관을 상대로 질의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의 대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차 연단으로 나아갔고, 이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금지하려 했다가 시행을 1년 미뤘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놀이 중심으로 하는 영어에 대해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게임·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뤄진 영어 놀이활동에 해당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본회의장 여야 대치 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엇박자

김동연 부총리 "검토중" … 홍영표 "현실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검토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구체화되면서 당·정 간의 엇박자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으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 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총리의 답변은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다. 주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안을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정간 엇박자가 나는 것은 물론 정쟁으로 번지면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원책 "8일 조강특위 인선 공개"

기자간담회…"한국당 친박·친홍 말 안나오게 할 것"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나머지 3명의 외부인사 위촉이 이미 끝났으니 늦어도 8일께엔 인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 기준과 관련, "(지역 조직관리 부분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품성과 열성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구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하고 그 안에 정파가 있어야 한다"며 "명망가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쭉 줄을 서는 우상숭배 정치를 해 왔다"며 "대선 캠프에 500명이 넘는 법조인과 언론인,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몰린다.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스를 중심으로 모이고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지명하면 마당쇠도 국회의원 된다더라는 말이 있다"며 "이제 그런 정치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을 타파하려고 한다"며 "최소한 한국당 안에서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친홍(친홍준표), 친김(친김무성)이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한국당 내 지방조직인 253개 당원협의회의 위원장 교체 권한을 갖는 기구로 당 사무총장과 부총장 등 3명의 주요당직자(내부인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전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인사인 전 변호사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바른미래 중심 우파 재편돼야"

"한국당과 통합 전대 말도 안돼…다당제 연합정치 필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우파를 단순한 보수 세력이 아닌 중도개혁 세력으로 개편해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틀을 바꿔야 하고,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과 같은 양당체제의 극한 대립을 피하고 다당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보수·우파 진영을 대표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시대에 어긋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데 대해서는 "무늬만 개혁을 얘기해서는 제대로 정치를 바꿀 수 없다"라며 "앞으로 한국당은 분열될 것이고, 한국당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친박·비박은 (갈등에) 끊임이 없고, 반공·냉전 보수세력이 중심을 이루고 태극기 부대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당은 극히 불안한 정당"이라며 "저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전대설에 대해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거듭 일축했다. 이어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적극적인 책임을 유지하겠다는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라며 "총예산은 지금대로 유지하고 정원만 조금 늘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도 다음 선거에서 1당, 2당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없으므로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하면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김갑봉 조직국장

민주당 전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김갑봉(54) 중앙당 조직국장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자로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 김 국장이, 중앙당 조직국장에는 박영중 도당 사무처장이 자리를 맞바꿨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전북 김제 출생으로 이리고·원광대를 졸업했다. 민주당 조직국장·대외협력국장·전북도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친화력과 원활한 대인 관계가 최대 장점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 · 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